

목재문화체험장 '문 활짝'

임실군, 54억원 투자 공사 완료...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관광 시너지 기대

임실군에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만한 목재문화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문을 열었다.

임실 대표 관광지인 알려진 사산대 내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은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목재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27일 임실군은 관촌면 소재 사산대 관광지 내에 자리한 임실목재문화체험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장식은 심민 임실군수와 문영두 임실군의회의장, 산림청, 전라북도, 목재문화진흥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모여 개장식을 기념하고,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또 이날 개장식을 기념해 한규성 충북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전국의 목재문화체험장 전문가들이 모여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졌다.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은 지난 2011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012년부터 5년간 사산대 관광지 8,989㎡ 부지에 총 사업비 54억원이 투입돼 추진됐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우리 전통의 목조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한옥으로 건축됐다.

이곳에는 목재의 문화와 가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재문화전시관과 유아들의 목재놀이기구를 이용한 오감체험을 위한 목재놀이방 등으로



임실군이 사산대 관광지 내에 위치한 임실목재문화체험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사진은 임실목재문화체험장 전경.

구성됐다.

또 청소년의 특기적성 교육과 진로 체험을 위한 목재체험관이 있으며, 성인들의 취미활동과 목공기술 직업교육을 위한 목재실습동 등도 마련돼 있다.

임실군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특성을 심분 살려내 인근 전주 한옥마을과 남원 광한루로 이어지는 테마관광 벨트에 임실치즈테마파크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체험장 주변에는 최대 36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동과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부터 인공암벽장, 미니골프장, 서바이벌장, 캠프아이디어장 등의 시설을 갖춘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이 운영되고 있어 연계관광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사산대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초화류와 목본류가 식재돼 있어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의 종합적인 문화체험 장소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개회사에서 심민 군수는 "이제 전북에도 전국에 내세울 만한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돼 지역주민들에게 목재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 도시에서도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임실군은 목재문화 지수에서도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밤에도 이쁜 강천산 만든다'

순창군, 콘텐츠키개발 공모사업 선정... 야간명소화 '신호탄'

순창 강천산 야간명소화 사업이 '순창환경캠프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키개발 공모사업에 '순창환경캠프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사업 선정으로 군은 3억원을 투자해 8월 중 약 2주간 야간에 강천산을 개장하고 야간 관광명소 사업의 가능성을 시험해 본다.

군이 추진하는 순창 환경캠프 사업은 강천산 병풍폭포를 중심으로 빛음방 콘텐츠키를 개발을 통해 자연공원에서 미디어 공원과 색다른 야간 산책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이다. 3가지 테마로 나눠 사업이 진행된다.

다. 먼저 혼합현실 콘텐츠키는 야간 자연공원에 병풍폭포와 개울에 빙프 프로젝터를 활용해 다양한 색깔의 빛의 향연을 만든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합쳐서 새로운 환경이나 시각화를 통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낸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캔버스 존이다.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병풍폭포의 인벽 표면에 관람객이 그린 그림이 실시간으로 형상화된다. 세 번째는 증강현실 콘텐츠키 존이다. 병풍폭포 주변에 8종의 티피 텐트를 설치하고 증강현실 인식마크를 부착한다. 관람객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숨겨진 증강현실 마크를 찾아가며 자신만의 계

임을 진행할 수 있다. 군은 이외에도 8개의 티피 텐트에서 버스킹, 타로, 그림자놀이 등 다양한 소규모 공연도 진행해 강천산 야간 관광의 다양성을 더할 계획이다. 군은 강천산 성수기인 8월 중 2주간 환경캠프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본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강천산 관광명소화 사업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면서 "아름다운 강천산의 실제 환경과 빛을 통한 다양한 미디어 공연으로 강천산을 밤에 더욱 아름다운 산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강천산을 전국 제일의 야간 관광명소 만들기 위해 38억을 투자해 강천산 야간명소화 사업의 실시계획 및 컨텐츠키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야간명소화 사업은 2018년 완료돼 2019년부터 본격 선보일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도시인 '남원 누비GO' ... 여행프로그램 운영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공모사업 선정 1억원 확보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선정, 이들 단위자원을 연계한 체험, 관광, 식사, 숙박이 어우러진 여행 프로그램(1박2일, 2박3일)을 제공하고, 출발부터 해산까지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자원은 지리산 둘레길 주변 약 300여개의 농가민박, 인근 농촌체험마을 등이 해당되고, 관광자원은 광한루, 만인의 총 등이 해당된다.

팜 투어 남원누비GO라는 주제로 사업 추진되며, 도시권 주민 및 학생들에게 자연 속에서 농촌문화를 접하도록 하여 지친 마음을 달래고 좀 더 확장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의 농촌 관광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누비GO'는 남원시 농촌체험관광 브랜드로써 '남원 농촌을 이리저리 다니며 사계의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을 마음껏 감상하고 누리자'는 의미가 내포되어있고, 지난 4월 개발되어 현재 상표출원을 한 상태이다.

이번 선정으로 남원시는 플랫폼 구성, 네트워킹 조직화 및 교육, 여행비용 일부 인센티브 지원 등 사업비 1억(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남원민의 차별화된 새로운 농촌관광 시스템을 구축해 남원 시가 농촌체험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 임실군과 임실시니어클럽이 나란히 우수상을 수상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실군, 노인일자리 평가서 우수상

시니어클럽도 수상 쾌거

보건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최한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 임실군(공익활동)과 임실시니어클럽(시장형)이 나란히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지역 4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참여자의 예로사항에 귀 기울여 신속히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임실시니어클럽은 행복한바탕과 행복찬 사업단의 시장형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맺어 인센티브 1천6백만원을 지급 받았다.

지난 2014년 개원한 노인 일자리 전달기관 시니어클럽은 한식부페

'행복한 밥상'을 시작으로 '행복찬', '행복한 농부', '주전부리', '행복용품9988' 등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익활동 368명, 시장형 68명에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문호 관장은 "노인의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건강하고 생산적 사회참여를 유도해 빈곤, 고독, 무위, 병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이가 세대간 갈등도 해결하는 긍정적인 면을 고루 갖추고 있다"며 "노인일자리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 '2017년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서 개최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시내버스 노선 '한눈에' 통합노선도 구축... 승객 편리

남원시는 시내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원하는 목적 노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내버스 통합노선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노선도는 버스승강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시내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시내버스 승강장에 부착됐던 노선도는 개별 노선과 시내권 개념도에 한정되어 있어 정보 전달력이 미흡했다. 또, 목적지를 경유하는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시내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시내권 대부분의 승강장에서 모든 노선의 세부 행선지와 노선도, 맞춤형 시간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승객들은 통합노선도만 확인하면 자신이 탈 수 있는 버스노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공서, 학교, 병원 등을 통과하는 노선 정보와 관광투어, 민인의총, 지리산 둘레길, 뱀사골, 실상사 등 관광지를 노선도에 표시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남원의 주요 관광지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현재 홈페이지(www.namwon.go.kr)를 통해서도 승강장별 버스 운행 시간과 행선지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 정위치유과정 수강생 모집

순창군이 자세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질환을 치유하는 정위치유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정위치유는 인제대 생안리에 위치한 건강장수연구소 힐링교육센터에서 총 5차에 걸쳐 진행되며 내달 5일부터 8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된다.

정위치유란 턱관절 균형운동과 바른자세 훈련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유 프로그램이다.

비틀어진 자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만성통증을 턱관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치유 요법이다.

올해로 4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혈액순환장애, 눈침림, 종아리 저림, 어깨결림, 오십견, 석회성건염, 허리외박반통증 등의 질환을 원광대학교 현의과 안성훈 교수팀이 참여해 진행한다.

참가비는 12만원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건강장수연구소 전화 650-1532번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